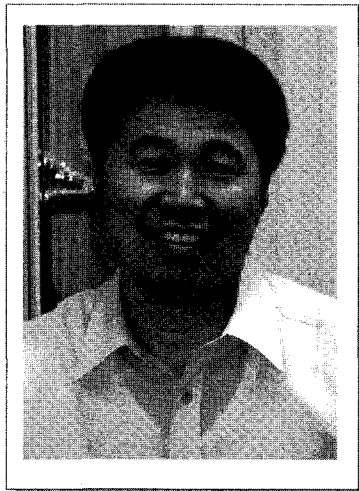


● 『발명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자투리 시간도 돈이다



김 병 오

전국발명교육연구회 회장
(inv.or.kr/ajukbo@hanmail.net)

사람이 후회하는 공통적인 이유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헛되이 보냈다는 것이다. 이렇게 헛되이 흘러 보내는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해 본 사람은 드물 것이다.

영국의 위커교수가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1분의 경제적 가치는 남성이 10펜스(약 2백원), 여성이 8펜스(약 1백60원)인 것으로 계산됐다고 미국의 CNN 방송이 보도한 적이 있다.

즉 '시간은 돈'이라는 격언을 수학 방정식으로 풀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특히 시간 중에서도 아침시간이 더욱 중요하다. 아침시간을 잘 활용해야 하루가 짜임새 있게 돌아간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발명인에게는 아침에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며, 오전 10시는 인체구조상 맥박, 체온, 혈압 등이 최정상능력을 발휘하기에 좋은 시간이다. 그런데 출근시간을 살짝 넘겨 지각하거나 이메일 체크가 조금만 길어져도 금방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곧 하루해가 저물어가게 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출근해서 책상을 보는 순간 오늘의 일에 대한 능률이 결정되어진다. 어제 퇴근할 때 책상을 정리하였는가에 따라서 말이다. 선진국 사람들은 업무중에는 서류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도 퇴근 무렵에는 책상을 항상 깨끗이 정리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다음날 원활한 업

'자투리 시간도 돈이다'라는 말은 자투리 시간에도 아이디어는 보인다는 뜻이다. 프로는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며 버릴 시간이 없다. 물론 발명인에게도 버릴 시간은 전혀 없다. 아이디어는 순간적인 사고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같은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므로 발명인들은 시간을 아껴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 보람있고 희망찬 미래를 가꾸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자투리 시간을 잘 이용하여 일년에 책 한 권을 쓴 사람도 있고, 외국어를 익힌 사람도 있다. 우리가 이러한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인생역전은 물론이고,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다.

아침시간은 황금이다

사람은 대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후회한다. 모든

사람이 후회하는 공통적인 이유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헛되이 보냈다는 것이다. 이렇게 헛되이 흘러 보내는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해 본 사람은 드물 것이다.

영국의 위커교수가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1분의 경제적 가치는 남성이 10펜스(약 2백원), 여성이 8펜스(약 1백60원)인 것으로 계산됐다고 미국의 CNN 방송이 보도한 적이 있다.

즉 '시간은 돈'이라는 격언을 수학 방정식으로 풀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특히 시간 중에서도 아침시간이 더욱 중요하다. 아침시간을 잘 활용해야 하루가 짜임새 있게 돌아간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발명인에게는 아침에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며, 오전 10시는 인체구조상 맥박, 체온, 혈압 등이 최정상능력을 발휘하기에 좋은 시간이다. 그런데 출근시간을 살짝 넘겨 지각하거나 이메일 체크가 조금만 길어져도 금방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곧 하루해가 저물어가게 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출근해서 책상을 보는 순간 오늘의 일에 대한 능률이 결정되어진다. 어제 퇴근할 때 책상을 정리하였는가에 따라서 말이다. 선진국 사람들은 업무중에는 서류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도 퇴근 무렵에는 책상을 항상 깨끗이 정리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다음날 원활한 업

무의 시작을 위해 저녁에 피곤하고 귀찮더라도 책상을 정리해놓고 퇴근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아침을 맞이 위한 하나의 생활 습관이다.

자투리 시간에서 얻은 아이디어!

일본에 사는 어느 부인은 외아들이 병으로 입원하여 간호를 하고 있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많은 간병인들은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 부인 역시 바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시간이 남아서 무료하게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의 바로 옆자리 다른 환자의 침대에 놓여있는 책을 보았다. 그것은 '머리 쓰는 법'이라는 책이었다. 그녀는 잠깐 그 책의 내용을 들여다보았는데 감기로 누워 있던 어떤 사람이 물이 끓는 주전자의 시끄러운 뚜껑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생각 끝에 송곳으로 주전자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김을 빠지게 하여 소리를 줄였고, 이 아이디어를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이었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옆 환자에게 빌려 읽은 책 한 권으로 그 부인은 모든 것을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 '담요는 어떻게 하면 따뜻할까?', '얼음주머니 밑에 타월을 까는 것이 좋을까, 안까는 것이 좋을까?', '체온기는 어디에 끼워둘까?'

그 부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아들의 간호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생각이 날 때마다 공책에 기록해두었다. 그러던 어느날 부인은 아들이 우유를 빨대로 마시려고 힘들게 상반신을 일으키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누워서 마실 수 있으면 참 편할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누운 채로 우유를 마실 수 있도록 할까? '사람이 몸을 굽히지 못하니까 빨대를 굽히면 되지! 그렇지, 주름을 넣으면 쉽게 구부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주름빨대 탄생되었다. 아들의 병간호를 하던 중 개발하게된 주름진 빨대는 특허로 출원되었고, 그 부인은 이후 만들어지는 모든 주름빨대의 로열티를 받으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냈다고 한다. 간호하면서 자투리 시간에 읽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일본인 다카지마 다카시는 '시간을 활용하는 33가지 철칙'이라는 책에서 '시간은 만인에게 공평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 부시 대통령에게도,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새 생명에게도 하루는 24시간이며, 일년은 365일로 한치의 오차도 없게 주어진다. 이제 각자 자신들이 얼마만큼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는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분석 해보라! 그리고 생각해 보자. 혹시 내가 '바쁜 굼벵이'는 아닌지...

발명아이디어

딱풀통을 이용한
휴대용 비누

폐품을 이용한 발명기법처럼 쉬운 기법도 드물다. 폐품은 어떤 형태이든지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이 아닌 개선만으로 그 목적(즉 발명)을 달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폐품은 그대로 사용하면 중고품이고, 개선하면 발명품이라는 사실이다.

'이 폐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는 없을까? 분해하여 일부를 다른 곳에 사용할 수는 없는가? 다른 곳에 결합시켜 볼 필요는 없는가?' 등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발명이 많이 나오고 있다. 연탄재를 이용하여 지금의 벽돌보다 더 단단하고 좋은 벽돌을 발명해냈고 페타이어를 이용해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를 만드는 등 많은 아이디어가 특허출원되고 있다. 또 대전의 신모 어린이는 폐 필름통을 이용하여 물감통을 만드는 아이디어로 글짓기를 하여

폐품을 이용한 발명기법처럼 쉬운 기법도 드물다. 폐품은 어떤 형태이든지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이 아닌 개선만으로 그 목적(즉 발명)을 달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폐품은 그대로 사용하면 중고품이고, 개선하면 발명품이라는 사실이다.

'이 폐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는 없을까? 분해하여 일부를 다른 곳에 사용할 수는 없는가? 다른 곳에 결합시켜 볼 필요는 없는가?' 등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발명이 많이 나오고 있다. 연탄재를 이용하여 지금의 벽돌보다 더 단단하고 좋은 벽돌을 발명해냈고 페타이어를 이용해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를 만드는 등 많은 아이디어가 특허출원되고 있다. 또 대전의 신모 어린이는 폐 필름통을 이용하여 물감통을 만드는 아이디어로 글짓기를 하여 전국 발명 글짓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우리 주위에 무궁무진하게 널려있는 빈 병, 빈 깡통, 다 쓴 칫솔 등 생활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면 무궁무진한 발명품이 탄생될 것이다.

우리도 흔히 사용하고 있는 딱풀(또는 루즈)을 다 사용하고 남은 통을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여 보자.

자, 지금부터 이 폐 딱풀통을 이용하여 '휴대용 비누 통'을 함께 만들어 보자.

준비물

- 천 약간
- 빈 딱풀통 1개
-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 비누 2~3개
- 네임펜과 셀로판 테이프

만드는 과정

- ① 먼저 딱풀통에 남아있는 풀을 완전히 제거한다.
- ② 물에 담궈 깨끗하게 씻어낸 다음 마른 형질로 물기를 닦아낸다.
- ③ 자투리 세수비누 2~3개를 빈 딱풀통에 밀어 넣어 채운다.
- ④ 네임펜으로 '휴대용 비누'라고 적은 다음 셀로판 테이프로 붙인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폐품을 활용한 발명품을 만들어 보았다. 자녀가 수련회나 캠프를 떠날 때, 또 가족이 함께 여행할 때 사용하면 매우 유용하고 편리한 발명품이다. 위 작품은 몇 년 전에 자원재생공사에서 주최한 재활용 아이디어 발명품전에서 수상한 작품이다.

